

[1] 수도승들은 언제나 침묵을 (지키기에) 힘써야 하겠지만, 특히 밤 시간에 그러하다. [2] 그러므로 금식할 때나, 점심식사를 할 때는 언제나 (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). [3] 만일 점심식사가 있었을 경우에는,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즉시 모든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앉고 한 사람이 교부(敎父)들의 담화집(談話集)이나 전기(傳記)를 읽든지, 혹은 듣는 이들을 감화시키는 다른 어떤 것을 읽을 것이다. [4] <구약의 7편>이나 <열왕기>는 (읽지) 말 것이니, 이해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에 이런 성서를 듣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읽게 할 것이다.

[5] 만일 금식의 날이거든 <저녁기도>를 바치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, 곧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담화집을 읽을 것이다. [6] 네 쪽이나 다섯 쪽 혹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읽을 것이며, [7] 이 독서를 하는 동안에는 맡겨진 임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라도 모두 함께 모여야 한다. [8]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한 곳에 모여 <끝기도>를 바칠 것이며, <끝기도>를 (바친 후) 나가면서 다른 이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허락도 절대로 (주지) 말 것이다.

[9] 만일 누가 이 침묵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 발견되거든 엄한 벌에 처할 것이다. [10] 손님을 접대할 필요가 있거나 아빠스가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했을 경우에는 예외이지만, [11] 그럴 경우에도 최대한의 신중함과 가장 적당한 절제로 이를 행할 것이다.